

조사보고서

2015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2014. 12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2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5년 1/4분기 전망치 및 '14년 4/4분기 실적치 ..	2
2. 기업규모·형태별 BSI 전망치 동향	3
3. 권역별 BSI 전망치 동향	4
III. 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과제	5
1. 기업경영 애로요인	5
2.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6
IV. 시사점	7

I. 조사 개요

□ 목적 : 국내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분석·발표함
으로써 기업경영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377개사

□ 기간 : 2014년 11월 20일 ~ 2014년 12월 3일 (휴일제외 10일)

□ 조사내용

1. 2014년 4/4분기 경기실적 및 2015년 1/4분기 경기전망
-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설비투자, 자금사정
2. 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과제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quad (BSI)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총 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BSI \leq 200$

II.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5년 1/4분기 전망치 및 '14년 4/4분기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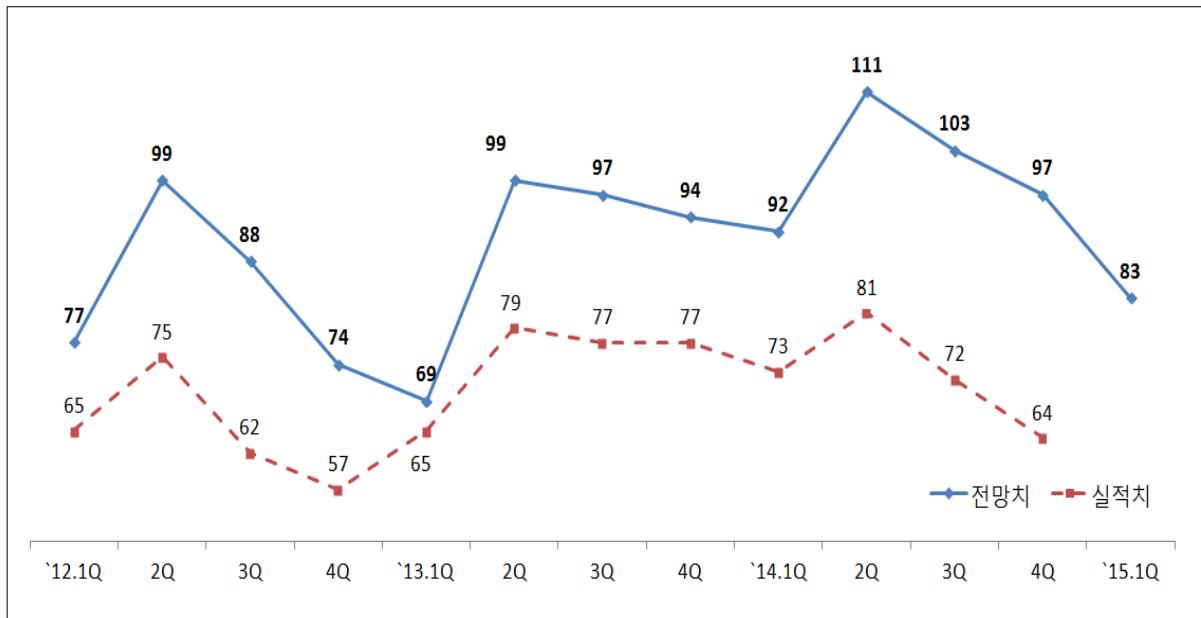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5년 1/4분기 전망치는 4/4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83

- '15년 1/4분기 BSI 전망치는 3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13년 2/4분기(99)이후 8분기만에 90이하로 떨어짐. 또한 2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미진한 회복세가 계속되고 내년 경제전망도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4년 4/4분기 BSI 실적치는 전분기대비 8포인트 하락한 64를 나타냄.

- '12년 4/4분기(57)이후 가장 낮은 실적치를 기록함. 내수부진, 환율불안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그림 1]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 및 전망치 추이



주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함.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2. 기업규모·형태별 BSI 전망치 동향

○ '15년 1/4분기 BSI 전망치는 기업의 규모·형태별로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규모별로 대기업은 '14년 4/4분기 100에서 '15년 1/4분기 81로 하락했으며, 중소기업도 '14년 4/4분기 96에서 '15년 1/4분기 84로 낮아짐.
- 대기업, 중소기업의 BSI 전망치는 기준치인 100이하로 하락하여 내년 1/4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대기업의 BSI 전망치가 중소기업보다 낮고 낙폭도 큼. 대기업은 환율불안에 따른 실적악화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폐지 (1~2%→0%)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감소(3~4%→2~3%) 등 세제혜택 축소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14년 4/4분기 97에서 '15년 1/4분기 91로 감소했으며, 내수기업도 '14년 4/4분기 97에서 '15년 1/4분기 81로 하락함.
- 올해 내수·수출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내년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BSI 전망치가 모두 하락함.
- 수출기업(-6p)보다 내수기업(-16p)의 BSI 전망치 낙폭이 크게 나타남. 내수지표의 회복세가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도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기업규모·형태별 BSI 전망치 비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14년 4/4분기	15년 1/4분기	14년 4/4분기	15년 1/4분기	14년 4/4분기	15년 1/4분기	14년 4/4분기	15년 1/4분기
BSI 전망치	100	81	96	84	97	91	97	81
BSI 실적치	65	-	63	-	65	-	63	-

3. 권역별 BSI 전망치 동향

○ 권역별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하락하였음.

- 제주권은 전분기대비 2포인트 상승한 104로,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어섬.
 - 제주권은 유입인구의 증가와 중국 등 외국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상승.
- 대경권은 전분기(90)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70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함.
 - 대경권은 주요산업인 IT산업이 미국 경쟁기업의 선전과 중국 후발기업의 기술추격 등 산업내 경쟁심화에 따른 실적부진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
- 호남권은 지난 분기(92)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7을 기록하였음.
 - 호남권은 주요산업인 석유화학이 유가하락으로 경제마진 축소 및 중국내 자급률 증가에 따른 對中수출 감소와 수출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우려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함.
- 충청권(103→80), 강원권(100→85), 동남권(100→93) 등은 BSI 전망치가 하락함
 - 우리나라의 수출·내수 등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경기 반등을 기대할만한 요소도 뚜렷하지 않아 기업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하락

[표 2] 2014년 4/4분기 BSI 전망치의 권역별 비교

구 분	'14년 4/4분기	'15년 1/4분기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97	83
2.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103	80
3. 대경권(대구, 경북)	90	70
4.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100	93
5.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92	77
6. 강원권	100	85
7. 제주권	102	104
전 국	97	83

III. 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과제

1. 기업경영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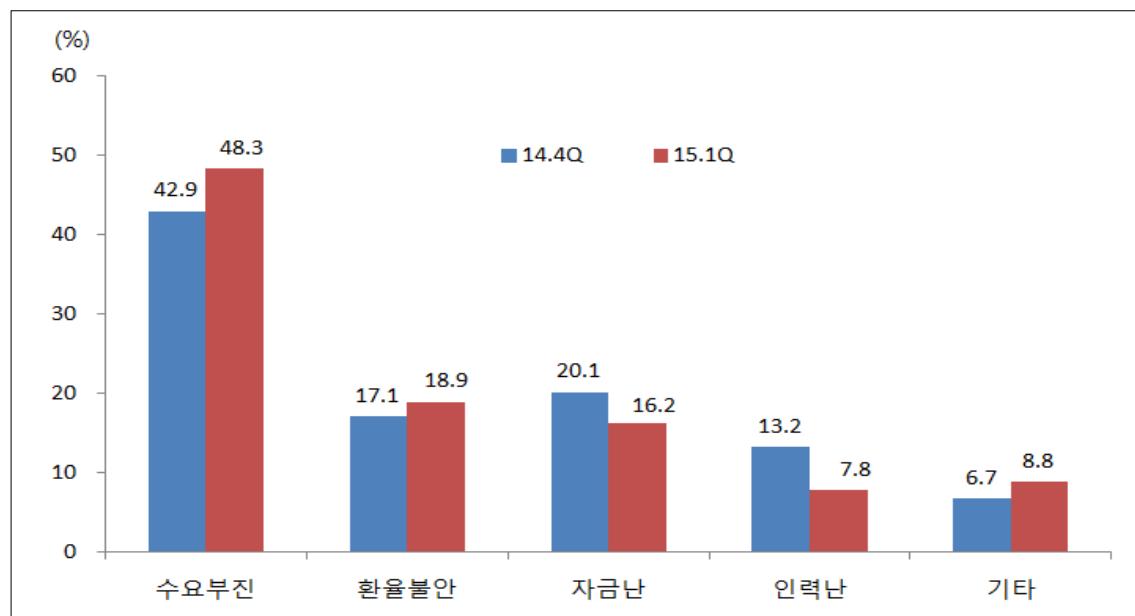
○ 기업들은 경영애로 요인으로 내수 및 수출 등 수요부진을 가장 많이 꼽음.

- 응답기업의 48.3%가 수요부진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답함. 이어 환율불안(18.9%), 자금난(16.2%), 인력난(7.8%) 순으로 지적함. <기타 8.8%>
- 세월호 사고 이후 더딘 내수회복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대한 수출감소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수요부진, 환율불안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전분기 대비 증가함.

- 수요부진은 4/4분기 42.9%에서 내년 1/4분기 48.3%로 증가함. 환율불안은 전분기 17.1%에서 내년 1/4분기 18.9%로 상승하면서 지난 4/4분기 3위에서 내년 1/4분기 2위로 상승함.

[그림 2] 기업경영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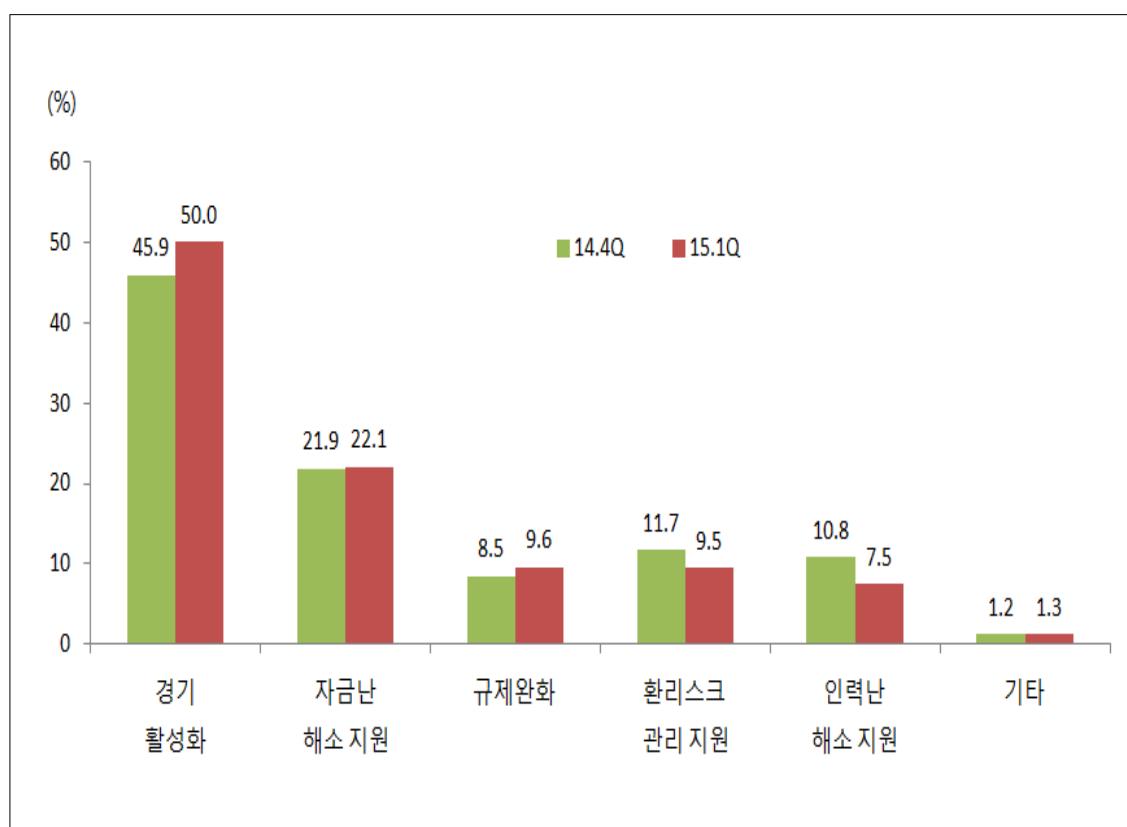


2.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 기업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로 '경기활성화'를 가장 많이 답함.

- 전체 기업의 절반(50.0%)이 정부 정책과제로 경기활성화를 바라고 있음. 이어 자금난 해소 지원(22.1%), 규제완화(9.6%), 환리스크 관리 지원(9.5%), 인력난 해소 지원(7.5%) 순으로 조사됨. <기타 1.3%>
- 경기활성화는 내년 1/4분기 50.0%로 전분기(45.9%)대비 증가하였고, 자금난 해소 지원도 전분기 21.9%에서 이번 분기 22.1%로 상승함.

[그림 3]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V. 시사점

- 우리경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민간소비(전분기대비, %) : ('14.1Q) 0.2 → (2Q) △0.3 → (3Q) 1.0
- * 설비투자(전분기대비, %) : ('14.1Q) △1.9 → (2Q) 1.1 → (3Q) △0.5
- * 수출(전분기대비, %) : ('14.1Q) 1.5 → (2Q) 1.7 → (3Q) △2.2

-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됨.

- 주요기관의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약간 개선되지만, 유럽·일본경제 부진,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전망.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도 3% 중후반으로 4%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치('14→'15) : IMF 3.3% → 3.8%, OECD 3.3% → 3.7%
- *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 : 한은 3.9%, KDI 3.5%, LG경제연구소 3.9%, 현대경제연구소 3.6%

- 정부는 우리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에 힘써 중장기적인 경기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화해야 함.

-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유럽·일본경제의 부진, 신흥국 경제불안 등 대외적 요인과 내수부진, 환율불안 등 대내적 요인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함.
-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의 차질없는 집행과 더불어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 불안 해소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에 힘써야 함.

- 기업은 기업가정신 발휘, 균원적 경쟁력 강화, 경제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

-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해야 함. 균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해야 하며, 주어진 경제환경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동향분석팀 민경현 대리(3443)에게 하시기 바랍니다.